“대행선 사상, AI시대 문제 극복 대안”

대행선연구원, 제28회 계절발표회
김응철 교수, AI 역기능 대안으로
대행 선사 ‘주인공·오공’ 등 조명
인경 스님, ‘마음챙김’ 문제 분석
‘염지관’ 수행체계로 극복 가능해



9월 19일 열린 대행선연구원 제28회 계절발표회에서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가 ‘AI시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행선 사상의 학제적 탐구’를 발표하고 있다.

안양=신중일 기자

인공지능(AI)시대의 주체성 약화, 공동체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행 선사가 주창한 주인공(主人空)·오공(五共) 사상 등을 실천 대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은 9월 19일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 3층에서 제28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AI시대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 담론으로 대행 선사의 사상을 조명하는 논문과 현대 심리치료법인 ‘마음챙김’에 대한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넘어서기 위한 수행체계를 제안하는 논문이 발표됐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교수는 ‘AI시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행선 사상의 학제적 탐구: 주인공, 한마음, 오공 사상을 중심으로’를 통해 AI시대에서 대행 선사 사상의 현대적 활용 가능성을 모색했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활용이 ‘되돌릴 수 없는 특이점’이 됐음을 전제한 김 교수는 AI시대의 문제를 △인간의 주체적 판단력 약화와 의존성 확대 △정체성 혼란 △창의성 상실과 지식체계 종속 △일자리 상실과 노동시장 불안정 △불평등 △권력 집중과 민주적 절차 위협 △공동체 붕괴 위험 등 일곱 가지로 분류했다.

김 교수는 “AI가 여러 분야에서 인간 대신 결정을 내리는 자동화된 판단이 확산될 경우 인간의 주체적 판단과 결정은 약화될 수 있다”면서 “인간의 주체적 판단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며 이는 인간 존엄을 보장하는 최후의 방어선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 같은 주체적 판단 문제에는 ‘주인공 관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자신에게 본래 갖추어진 불성과 그 성품이 공하다는 지혜를 함께 설명하는 주인공을, AI의 자동화된 판단에 대한 의존을 성찰하는 수행 원리로 제시한 것이다. 김 교수는 “대행 선사가 제시한 ‘주인공’은 기술과 인간을 하나의 근원적 작용으로 이해함으로써 정체성 혼란을 치유할 수 있는 수행의 화두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실천의 원리로는 공체·공생·공심·공용·공식의 오공 사상을 제시했다. ‘공체(共體)’는 모든 존재가 하나의 전체 속에서 연결돼 있다는 인식으로 김 교수는 공동체적 토론과 협력을 통해 창의성을 확장하는 원리로 해석했다. AI가 제공하는 지식에 의존하기보다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발상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인간의 창의성은 고립된 개인의 산물이 아니라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확장될 수 있다”면서 “공체 정신의 실천은 공동체적 토론과 협력을 통해 변형, 확장을 통한 창의성을 회복하고 상호 연결과 전체성을 통해 인간의 창의성 상실과 지식체계 종속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와 자기 가치의 상실에는 ‘공생(共生)’의 실천을 제안했다. 인간은 창의적·감성적·윤리적 영역을 담당하고 AI는 반복적·분석적 업무를 맡는 등 역할 분담이 이뤄지면 인간과 AI의 공생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심(共心)’은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응하는 원리다. ‘공심’이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공감을 확장하고 배제된 집단을 공동체의 일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이를 디지털 포용 정책, 재교육 프로그램, 사회안전망 강화로 연결하면 불평등을 줄이는 실천적 기반이 된다는 게 김 교수의 제안이다.

권력 집중과 민주적 절차의 위협에는 ‘공용(共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공용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독점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활용하고 공유하는 실천 정신을 의미한다”면서 “데이터와 기술의 공유, 지식과 정보의 공동 활용은 공용의 원리에 입각해 촉진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공지능은 특정 집단의 권력이 아니라 공동체적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체적 유대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는 ‘공식(共食)’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공식은 물질적 차원의 식사 공유에 국한되지 않고, 삶의 자원과 가치의 공동 분배와 나눔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며 “공식의 실천은 현대사회에서 공유경제 모델의 확산, 사회적 안전망의 강화, 공동체적 의례와 활동의 제도화 등을 통해 공동선(共同善)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행선 사상의 사회적 적용을 위한 방법으로 김 교수는 ‘정보를 어떤 관점과 가치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수용자의 판단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프레이밍 효과’ 개념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프레이밍 효과’는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의 사상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인식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담론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대행 선사의 주인공·한마음·오공 사상은 인공지능 시대의 사회적 위기를 재구성하는 유효한 프레임워크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명상상담평생교육원 원장 인경 스님은 ‘마음챙김(Mindfulness) 개념의 한계 극복과 염지관(念止觀) 명상’을 통해 서구에서 개발된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MBSR)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MBCT) △수용전념치료(ACT) △변증법적 행동치료(DBT) 4대 명상 프로그램의 매뉴얼을 분석·비판하고 이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수행체계로서 ‘염지관(念止觀)’ 명상을 제시했다.

발표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AI가 알려주는 정보가 정말 옳은 것인지 분석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대행 선사께서는 회사와 가게를 운영하려면 자기 자신이 알아야 직원도 부릴 수 있다고 하셨다”면서 “한마음 사상이 수행적 나침반이 돼 기술과 생명이 조화롭게 살아갈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김 교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본각사상’으로 선불교 윤리 조명

한국선학회 추계학술대회
10월 22일…도법 스님 기조발제

오늘날 다양한 수행·명상 문화 확산 속에 불교 수행의 의미와 정체성을 돌아보고, 선불교의 윤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선학회(회장 향산 스님)는 10월 22일 오후 1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선불교와 윤리-본각사상과 관련하여’를 주제로 2026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남원 실상사·고려대장경연구소 주최, 한국선학회 주관으로 진행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간화선을 중심으로 형성돼 온 한국 선불교의 수행 전통과 조계종의 역사적·실천적 기반을 되짚고, 본각사상을 중심으로 선불교의 윤리적 함의를 조명하는 자리다.

특히 선불교의 깨달음과 수행이 인간의 삶과 관계, 공동체의 윤리적 실천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피며 전통 계승과 현대적 재해석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모색한다. 아울러 현대사회에서 선불교가 지니는 수행적·윤리적 의미를 재정립하고 한국 선불교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학술대회에서는 실상사 조실 도법 스님이 기조발제에 나선다. 이어 통도사 전계사 덕문 스님이 ‘중국 선종이 율종사원으로부터 독립한 이유’, 고려대장경연구소장 종림 스님이 ‘선의 주체와 자유: 본각사상과 관련하여’, 전 해인사 율원장 혜능 스님이 ‘선불교와 윤리: 공성과 윤리는 어떻게 합일할 수 있는가’, 기본선원 교선사 종묵 스님이 ‘선의 돈오와 점수는 윤리적 실천을 달리하는가’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학술대회에 앞서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 스님 등의 축사가 예정돼 있다.

배희정 기자

제11회 천태예술대전 대상에 ‘삼신불도’

11월 24~30일 한국미술관서 전시


제11회 천태예술공모대전 대상을 수상한 황체상 작가의 ‘삼신불도’.

제11회 천태예술공모대전 대상에 황체상 작가의 전통불화 ‘삼신불도(비로자나불도·노사나불도·석가모니불도)’가 선정됐다.

천태종(총무원장 덕수 스님)이 주최하고 천태문화사업단(단장 월도 스님)이 주관한 이번 공모대전에는 총 142점이 출품됐다. 국가유산청장상인 최우수상에는 조각공예 부문 강민정 씨의 ‘장엄, 빛을 잇다’가 선정됐다.

심사에는 조해종·김선희(전통불화), 양선희(현대불화), 서칠교·남지향(조각공예), 홍대희·박현숙(민화)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심사위원회는 작품에 대한 토론과 투표 등을 거쳐 대상과 최우수상을 비롯한 부문별 수상작을 선정했다.

부문별 우수상에는 전통불화 황난숙 작가의 ‘군위 법주사 괘불탱’, 현대불화 지승호 작가의 ‘락무비천도’, 조각공예 조용준 작가의 ‘연꽃 속 관세음보살’, 민화 김은선 작가의 ‘호피장막도’가 각각 선정됐다. 이밖에도 각 부문 장려상과 특별상 등 수상작이 결정됐다.

심사위원회는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특히 조각공예 부문의 출품작이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점이 고무적”이라며 “각 분야 출품작의 수준도 눈에 띄게 향상돼 경쟁력이 높아진 만큼 심사에도 더욱 신중을 기했다”고 밝혔다.

대상작인 황체상 작가의 ‘삼신불도’에 대해서는 “전통불화에 대한 기본기가 탄탄한 가운데 삼신불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돋보였다”고 심사평을 전했다.

천태종은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제11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수상작을 전시한다. 시상식은 11월 25일 개최될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정미년 불교달력은 마하몰로 주문주세요!!

마하몰에서는 불기 2571(서기2027)년 불교달력을 주문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용도와 사이즈, 더 좋은 이미지와 사진들로 구성된 달력들을 다양하게 준비 하였습니다. 한지, 달력(大, 小), 차걸이, 수첩, 마닐라, 등 저렴한 가격으로 신속하게 제작 · 공급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202호 동심불 이야기 5월


201호 천진불


203호 산사의 향기


204호 암자에 길을 묻다


205호 그리운 금수강산


206호 부처님의 꽃 수련의 세계


208호 밝고 향기롭게


102호 관음도(한지)


211호 마음의 고향


214호 수행정진


215호 견성성불 달마도


216호 부처님의 성지


217호 산사의 꽃 야생화


224호 12별자리와 신비한 부적


참나를 찾아서(차걸이)


오늘은 좋은날 행복한 미소(차걸이)


밝고 향기롭게(수첩) 동심불 이야기 (수첩)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